

## 2018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1월 2일, 연구소 3층 세미나실에서 육아정책연구소 2018년도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백선희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백선희 소장은 신년사를 통하여 2018년도 도약을 위한 준비 'RESET KICCE'를 강조하며, 직원들과 신년 인사를 나누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기존에 추진하였던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서 탈피해 미래를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대한 새정부 정책방향 발표와 연초 연구소의 기관 운영 계획 관련사항 전달이 있었다.



## 2

육아정책연구소는 1월 9일(화) 오전 11시에 연구소 3층 세미나실에서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제2차 육아정책연구소 열린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2차 토론회는 최미숙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기획조정이사, 김인숙 어린이집총연합회 세종사회장, 이고은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이 참석하였으며,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참석한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 부모, 노동계(일하는 부모) 토론자들은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연구에서의 균형성과 형평성 확보, 현장 중심의 연구 강화, 연구의 독립성 확보,



연구수행에 있어 정책수요자인 부모의 참여 강화 등의 제안을 통하여 정부부처에 대한 육아정책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요청하였다.

### 3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1월 16일 (화) 오전 11시에 연구소 3층 세미나실에서 정부부처 관계자를 모시고 「제3차 육아정책연구소 열린토론회」를 개최하였다. 3차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이윤신 과장(보육사업기획과), 교육부 안정은 장학관(유아교육정책과), 여성가족부 박정식 사무관(가족정책과)이 참석하였으며,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근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 수립을 위한 연구 성과 제공, 정책투자의 효과와 관련한 거시·미시적 차원의 연구 수행, 다변화된 국내·외 기관 및 정부부처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 관점의 연구 수행, 육아정책 관련 해외사례 및 최신 정책동향에 대한 지속적 제공 등을 연구소에 제안하였다.



### 4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지난 1월 23일(화) 오전 11시에 연구소 3층 세미나실에서 시민사회, 언론사 관계자를 모시고 「제4차 육아정책연구소 열린토론회」를 개최하였다. 4차 토론회는 참여연대 복지위원회 김중해 실행위원(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세이브더칠드런 제충만 대리, 한겨레 신문 양선아 기자가 참석하였으며,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김중해 실행위원은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정책기조에 따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연구 수행을 통하여 연구소가 육아정책 이슈를 정립하고 선도해 나가는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이어 제충만 대리는 직접적인 정책수요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경청·수용한 아동중심의 육아정책 연구 수행을 요청하였으며, 양선아 기자는 정책수요자들이 처한 다



양한 상황과 여건들을 고려한 ‘디테일한’ 연구와 더불어 한국어동패널자료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시적·중장기적인 연구와 함께 연구소의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 5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지난 1월 30일(화) 오전 10시에 연구소 3층 세미나실에서 원내 임직원과 함께 「제5차 육아정책연구소 열린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백선희 소장의 3년 경영전략인 “2018-2020 KICCE 비전과 목표”을 수립하기 위해 전(全) 직원의 의견을 경청·수렴하는 자리로서, 원내 임직원 모두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소장의 경영전략 수립에 전 직원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것은 처음 시도한 방식으로 ‘열린혁신경영기획 TF팀’에서 준비한 “2018-2020 경영전략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세부 내용인 추진전략과 실천과제를 함께 보완해 나가는 상향식(bottom-up)의 전수렴의 장(場)이었다.



## 2018 /

육아정책연구소는 3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2018년도 기본/일반과제 24개 과제에 대한 착수보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백선희 소장과 원내 전체 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 연구과제의 전반적인 연구계획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올해 진행된 기본/일반과제 착수보고 워크숍은 연구 착수 단계부터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처음으로 학계 전문가를 배석하여 실시하였으며,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등이 자문자로 참석하였다.



## KICCE

육아정책연구소는 3월 14일, 'KICCE 브라운백 정책 미팅'을 개최하였다. 이날 브라운백 정책 미팅은 2019년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해 개최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및 사회복지정책분야 국정과제-육아 관련 정책 중심'을 주제로 백선희 소장이 직접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발표 후에는 전반적인 국정 과제 및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